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에 넘쳐 2017년 새해의 행군길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된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도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 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높은 과학교육성과로 뜻깊게 빛내였다.

지난해 대학에서는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련속적인 철야진군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전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지난 시기 상상할수도 없었던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전국대학들의 본보기가 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교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학과목들에서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본보기가 창조되고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많은 학과목들의 강의안들이 새롭게 개선되었을뿐아니라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지고 수많은 실험실들과 실험실습설비들이현대화되여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데서 큰 전진이 이룩되었다.

지난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경영업무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한것을 비롯하여 평양체육기자재 공장, 평양자라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룡악산샘물공장현대화와 공장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자연박물관을 세계적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학술안을 훌륭히 완성하고 박물관운영에 필요한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량자암호통신기, 전방향어군탐지기를 비롯한 백수십여종의 첨단설비 및 기구들과 4세대폴리프로필렌합성촉매, 그라펜, 테라코템 등 수십종의 첨단기술제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노벨상수상자들과의 국제학술토론회, 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사회과학과 자연 과학 부문별국제학술토론회와 전국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국제 및 국내토론회들 이 진행되여 세계일류급대학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의 자랑찬 모습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였다. 이 과정에 열욕조속에서 스칼라붕괴에 의한 스테라일뉴트리노암흑물질산 생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여러건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으 며 수십건의 론문들이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되였다.

또한 지난해 국가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과 전람회, 전시회와 과학기술발표회, 토 론회에 참가하여 출품된 대부분의 전시품들과 과학기술안들이 높이 평가되고 순위권에 입 선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주 도하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대학의 위상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지난해에 대학사업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 한 령도와 대학안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시련과 난관이 겹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 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 신 속에서도 우리 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을뿐아니라 대학창립 70돐을 맞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주체 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보내주시여 **김일성**종합대학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의 새시대 대학이 지니고있 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 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 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를 가슴뜨겁게 새 겨안았다.

우리는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지난 한해의 투쟁과정에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력사적인 서 한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 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학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키며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의 전렬에 당당 히 올려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 며 투쟁기품입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항구적인 강 령으로,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학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예로운 전통을 이어 대학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끌없는 충정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과학교육의 해인 올 해에 대학의 교육체계와 교육관리,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 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교원, 연구사들은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

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 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백규석을 리용하여 전력 및 건설부문들에서 리용하고있는 변압기 유와 규소고무, 규소수지를 생산하는 기지를 꾸려 실천에 도입하며 화력발전소들에 중유절 약기술과 석탄슬라리연료를 개발도입하여 전력생산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대학에 경질합금공구재료생산기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 및 지적제품생산기지를 꾸리며 미생물에 의한 금속침출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생산에 이미 도입된 촉매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에틸렌—프로필렌합성고무용촉매를 완전히 국산화하도록 하며 우리 식의 첨단분석체계를 개발하여 분석 및 측정설비들의 국산화를 실현할뿐아니라 메타놀로부터 저급올레핀합성을 위한 생산공정확립을 비롯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에 이바지하는 연구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제고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실천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들과 식물성장조절제를 전국에 확대도 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과수농장 영농지휘체계와 세포지구 축산기지통합생산체계를 보다 완성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비약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 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고 아름차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교직원, 학생들의 일심단결된 힘과 자력자강의 정신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대학안의 모든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에 대학을 세 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자.